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을 때 분할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을 소중히 하는 나라입니다. 그 제일 알기 쉬운 것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극을 피합니다.

일본의 보험제도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보험료를 매월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병이나 상처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매우 고마운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보험에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은 채로 온 나쁘게 병에 걸려 버리면 상당히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험료의 반을 자신이, 반을 회사가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보험의 수속을 해 줍니다. 일하고 있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 치료비나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이 보험에 들면 의료비의 본인 부담분은 30%로 됩니다. 또, 「사회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시구 관공서로 수속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시구 관공서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재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것, 등이 조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의료비의 본인 부담은 30%입니다.

단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사회보험과는 달라 보험료의 전액을 스스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세대 마다 전년도의 소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시구 관공서에 신청하면 「감면」이라고 하여 보험료를 싸게 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했을 경우, 태풍이나 지진등의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구마치무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확정신고를 잘 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해도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는 분할 납부나 지불을 연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1년 이상 보험료의 체납이 계속 되면 통상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또, 연체금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번에 소개한 수속을 할 수 있을지 시구 관공서로 상담해 보세요. (해설·마에다 미호)

「후지미시국제교
류포럼」
11월 15일(일)
개최합니다

민족제전은 올림픽입니다만, 후지미시의 국제교류포럼은 후지미시근처에 사는 외국적시민과 일본인의 교류의 장입니다. 매년 외국적시민에 의한 다양하고 재미있는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장소와 시간 후지미시립후지미노교류센터 12:00~16:00

www.ficcc.jp/fore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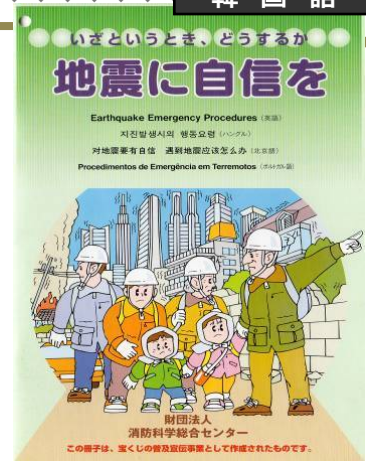
●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염려가 이 책 한권으로 안심 4개국어판 「지진에 자신을」이 완성!

지금 세계 각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진국입니다. 평소에 준비를 충분히 해 두는 것이 국민의 해야 할 것으로 이번에 영어, 한글, 북경어, 포르투갈어의 4개국어로 번역되었던 「만일의 경우, 어떻게 할까 지진에 자신을」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진국 일본에 사는 외국적시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진 대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100 명에게 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연락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049-256-4290



이득정보

일본어교실의 「토시고시소바」

센터의 일본어 교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는 외국적시민에게 늘상 사용하는 생활언어에 해당하는 쉬운 일본어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1년을 통해 시기에 맞는 고유의 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월은 「토시고시소바」입니다. 왜 일본인은 12월 31일 소바(메밀국수)를 먹을까요?

만드는 방법을 체험하고 맛도 즐기시지 않을까요. 개최일은 12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맛을 전하는 가게 「인디」

카미후쿠오카역에서 도보 5분 떨어진 곳에 있는 「인디」는 작년 8월에 오픈한 스리랑카의 맛을 전하는 가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분은 일본에 온지 8년 되는 야만씨·인드라니씨. 스리랑카나 인도의 본격과 카레가 500엔부터 만끽할 수 있는 멋진 가게입니다. 그 밖에도 스피닌로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풍튀김하루마키나 중화풍 야채볶음도 대인기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향토 맥주와 메뉴도 풍부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분위기로 본고장의 맛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야만씨. 주인인 그녀의 인품에 반해 많은 팬이 모여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데지를 보기 위한 간단한 튜너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성에서는 생활보호등의 공적부조수급세대, 혹은 장애자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시민세 비과세의 세대, 사회복지사업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으로 NHK 수신료가 전액 면제의 세대를 대상으로 지상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한 튜너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10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튜너가 있으면 옛날 텔레비전으로도 지데지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049-256-4290) 또는 지데지튜너지원실시센터(0570-033840)에 연락해 주세요.

www.ficec.jp/living/

●6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